



레퍼런스 57260

바쉐론 콘스탄틴이 만든 역대 가장 복잡한 시계

레퍼런스 57260 은 이제껏 인류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복잡한 컴플리케이션과 혁신적 테크닉을 더블-다이얼에 담은 메종의 역작이다. 이 시계를 완성하기 위해 메종의 워치메이커 마스터 3 명이 꼬박 8 년의 세월을 투자했다.

워치메이킹의 가장 클래식한 법칙을 모두 따랐지만 여기에 21 세기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탄생된 이 시계는 전적으로 독창적이며 유일무이하다. 총 57 개의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이다. 컴플리케이션들 중 멀티플 캘린더와 더블 레트로그레이드 라트라팡테 크로노그래프 등은 이미 기존에도 존재하던 컴플리케이션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고 수정되고 재해석되어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재탄생했다. 그러므로 레퍼런스 57260 에 탑재된 무브먼트의 새 칼리버는 이제껏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독창성을 자랑한다.

레퍼런스 57260 의 컨셉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구현시키는데는 단순히 엄청난 창의력과 상상력만 동원된 것이 아니라 가장 고난이도의 수학적, 공학적 이해력과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시계제조 기술력이 요구되었다. 브랜드 탄생 260 주년을 기념하는 올 해 마침내 완성된 이 제품은 고급 시계 제조 역사에 새로운 기준점을 세웠으며 이 제품의 완성 과정에서 투자된 장기간의 리서치와 연구, 워치메이커들과 다양한 마스터 장인들이 발휘한 필생의 테크닉과 장인 정신은 워치메이킹 업계에 있어 1920 년 대 이후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. 레퍼런스 57260 은 또한 저명한 시계 애호가와 위대한 메종 그리고 메종의 워치메이커간의 만남으로 탄생되며 역사 및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아틀리에 캐비노티에 마스터 피스들의 전설적인 계보를 잇고 있다.